남문기
그는 누구인가?

좌우명?
그러더니...

NAM MOON KEY

남문기, 그는 누구인가?

그는 1953년 경상북도 의성군의 조그마한 농촌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시골이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를 이어 동네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가정의 막내로 자라났으며, 방황으로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대학에서 행정학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해병대를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졸업 후에는 주택은행원(현 국민은행)이 되었고, 1982년 인생의 대 전환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나이 29세에 단돈 300달러를 들고'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미국 이민생활은 만만치 않았으나, 야간 빌딩 청소업으로 시작된 사업은 29년 만에 미주 한인최대의 부동산그룹(뉴스타부동산그룹:www.newstarrealty.com)으로 성장해 왔다. 이를 두고 미국 주류언론에서는 '남문기 성공신화'라고 치켜 세워주었다.

사실 2005년에는 30억달러(3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당시 2,300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70여 개의 본.지사와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으로 성장했으니 들을 수 있었던 평가인 것이다. 뉴스타는 2007년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미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0여명의 임직원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영남의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예의범절에 익숙하며, 해병대에서의 군대 생활은 불굴의 투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키워 주었다. 또한, 부동산업을 통해 고객 그리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가 녹아 오늘날 그를 지탱해주는 '그러려니'라는 좌우명이 되었다. 큰 재산을 취급하는 부동산업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고, 열정, 정직,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직업이다.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그러려니'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남에게는 최대한의 이해와 배려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 박수를 보내며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켜 온 것이며, 이러한 삶의 철학과 직업관이 난관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2006년 직선 LA 100만 한인회장, 그 이후 미주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세계한인회장대

회 의장 등의 한인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인으로서의 준비와 봉사의 삶을 체질화 하였다. 그는 미주의 주요도시는 물론이고, 전세계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 많은 인적/물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그는 현재 전세계에 Twitter Follower가 110,000명,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 그리고 33,000명의 E-mail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카카오톡이 2,500명, 이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직접 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그 동안 '뉴스타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 한인사회를 다니며, 세계 각 지역과 정부기관, 각급학교, 회사 등을 두루 다니며,'남문기성공학 강의'를 300회 이상 진행해 왔으며, 이 타이틀은 이제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다. 이 '성공학 강의'는 국내 및 재외국민사회의 부 창출의 Text가 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멘토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서 만든 책인 '잘 하겠습니다'를 읽고,'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지금도 미국 땅을 밟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교포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장학사업은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주류사회와 타 민족 지도자들과의 교류와 친선에도 앞장 서 왔다.

그는 그 동안 재외국민의 참정권 홍보를 위해 전 세계 한인사회를 방문하여 호소해 왔으며, 자비를 들여 이 곳 언론에 광고를 실어가며, 유권자등록을 촉구해 왔다. 그 동안 우편등록제, 순회투표제, 교통편의 제공 등 수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는 그 동안의 비즈니스 현장과 한인단체장을 역임하면서 750만 해외동포는 한민족 웅비의 새 역사를 열어 나가는데 보석과도 같은 귀한 존재이며, 잠재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들의 애국심과 역량을 결집해낼 필요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750만 해외동포들의 힘을 결집해 내기 위하여는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그 동안 쌓아온 명성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으며, 75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조국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기업인으로서 또한 한인 단체장으로서 활동해온 경험과 개인적인 모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갈 것이다.

NAMMOONKEY

300달러의 신화

미국에서 남문기를 모르는 이는 없다. '300달러의 성공신화!', '땀과 열정으로 이룬 아메리칸 드림!' 언론에서 그를 두고 일컫는 말들이다. 300달러를 들고 도미하여, 청소로 시작해서 연 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하는 미주 한인최대의 부동산 그룹을 일구어낸 남문기 뉴스타부동산 그룹의 명예회장의 이야기는 한인언론 등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인 성공신화로 회자되곤 한다.

건국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남회장은 1982년 1월23일 한국주택은행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 하고, 단돈 300달러만을 지닌 채 미국 땅에 첫 발을 내 딛는다. 그 후 도서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출신의 청소 용역회사 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는 청소부로서의 미국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청소부의 일이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그의 특유의 근성과 근면, 성실로 3년 반 만에 작은 규모였던 그 청소회사를 엄청난 매출규모의 청소 용역회사로 키워내면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는 제 2의 도약을 하게 된다. 청소일 틈틈이 쉬지 않고 공부하며 미국의 경제 흐름을 살피던 그는 '땅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미국인생을 부동산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면서 청소회사 사장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1987년 12월에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 부동산 에이전트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그의 무서운 열정과 성실성과 집념,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부동산업계에서 단연 빛을 발했다. 수많은 미국인 에이전트들을 제치고 최고의 실적을 올리며 탑 에이전트로서 명성을 날리던 그는 부동산업을 시작한지 10개월만인 88년 9월, 오늘날 뉴스타그룹의 모태인 리얼티월드 뉴스타부동산을 창립하게 되었고, 20여 년 만에 그는 뉴스타부동산을 연 매출 30억 달러를 넘는 미주 한인최대 부동산 그룹으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혹자는 그를 보고 행운아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어떤 행운이나 우연이 결코 아니다. 그의 열정과 집념, 감동의 경영으로 이뤄낸 땀과 능력의 소산인 것이다.

현재 뉴스타부동산그룹은 남가주와 전 미주, 캐나다 등에 50여 개의 지사망과 에이전트와 계열사 직원 포함 약 1,000여 명의 직원에 New Star Property Management사를 포함하여 뉴스타투자그룹과 장학재단, 뉴스타보험회사, NIT웹 컨설팅회사(newstarrealty.com), Na Communications 광고기획사, 뉴스타에스크로, 미 전역에 퍼진 뉴스타부동산대학 등의 계열사를 갖춘 원스탑 종합 부동산그룹으로 연 매출 실적 3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는 미주 한인최대 부동산 기업이다.

뉴스타부동산대학은 지난 20여 년 동안 총 1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LA본교와 오렌지카운티, LA동부지역, 샌디에고, 산호세 등 5곳에 있고, 워싱턴DC지역, 워싱턴 주 시애틀지역을 추가하여 7개 지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조만간 뉴욕지역과 에틀란타, 시카고에도 오픈 할 예정이다.

뉴스타부동산에는 연간소득 100만불 이상을 포함, 10만불 이상의 고소득을 달성했던 에이전트만도 300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에이전트들 중 벤츠를 몰고 다니는 이가 400-500명은 될 정도로 뉴스타 그룹을 통하여 분배되는 이들의 소득 또한 엄청나며 뉴스타 부동산 그룹을 통하여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사례가 끊임없이 탄생되기도 했다.

뉴스타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단정한 곤색 정장에 붉은 색 넥타이, 짧은 커트의 헤어스타일에 뉴스타 로고가 새겨져 있는 흰색 와이셔츠, 자동차 번호판마저도 New Star로 시작되는 통일성과 전문성, 그것이 미주 전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뉴스타 에이전트들의 모습이다. 남문기 회장의 경영철학대로 뉴스타부동산그룹은 끊임없는 서비스 정신 무장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마치 사관학교처럼 모든 에이전트들을 최고의 부동산 전문인으로 키워내고 있으며 미국회사를 비롯한 다른 모든 부동산 회사들마저 뉴스타부동산의 경영방식을 롤 모델로 삼고 있기도 하다.

뉴스타부동산그룹의 현주소

기업이 커뮤니티와 더불어 사는 길

뉴스타부동산은 결코 현재의 실적에 만족하며 머무르는 기업이 아니다. 뉴스타부동산은 현재 미국, 캐나다, 서울 등에 50개 지사를 기반으로 오리건, 알래스카, 텍사스의 휴스톤 지역과 엘파소 그리고 동부지역 보스턴 오픈 등 미국 내에 무서운 속도로 지사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한국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지에 총 2000여 개의 지사를 오픈 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뉴스타 만이 할 수 있는 세계 각 지역 뉴스타인 3,500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확실하게 뉴스타의 위상을 정립 할 것이며 확실한 뉴스타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이다.

계열사도 비즈니스 컨설팅회사를 비롯하여 Printing & Design 회사와 종합 Apparel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인쇄물과 유니폼, 교본, 파밍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금도 부분적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북미 전역을 잇는 '뉴스타 Moving Co.(운송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뉴스타 대형법률그룹과 뉴스타 회계 사무소를 설립하여 재외 동포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또한, 뉴스타 Title 보험회사와 뉴스타은행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투자그룹의 활성화를 이루어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필요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투자할 것이다. 뉴스타그룹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족기업으로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며 진취적인 모범기업의 대표주자로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전 세계에 뉴스타의 깃발을 휘날리며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쉬지 않고 전진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

OONKEY

뉴스타그룹은 결코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며 달려가지는 않는다. 남문기 회장은 2000년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장학사업으로 다음 세대의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또한, 뉴스타 문화공간을 설립하여 동포사회에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한인 음악 대축제 및 한민족 축제 등 동포 문화행사에 매년 엄청난 금액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그 모든 한인 문화 행사들이 타운의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도록 일조하는 등 커뮤니티와 더불어 호흡하는 모범적인 사회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NAMMOONKEY

남문기, 그는 누구인가

남문기회장의 성품과 인적 네트워크

30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한 거대 기업 뉴스타부동산그룹의 회장이며, 미주상공인의 롤 모델이기고 하지만 그는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미주 동포 250만을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과 해외동포 750만을 대표하는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그의 직함과 그가 걸어온 화려한 경력들로 인해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으레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를 만나기 전 긴장하던 이들도 그와 마주 하는 순간 그의 진솔하고 소박한 성품에 놀라게 된다.

그의 화법은 단순하지만 사람들의 정감을 자극하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꾸밈없는 말투는 솔직하다 못해 거침없어 보인다. "경상도 의성 촌놈이니께 그렇다"며 소박하게 웃지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와 친화력은 세일즈맨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타고난 본성으로 보인다. 새로 들어온 에이전트이든 거물급 인사이든 만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그의 천연함과 포용력은 만난 사람으로 하여금 남문기 회장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게 만드는 마술 같은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본성과 해병대 사나이의 멋진 의리로 결코 남을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은 끝까지 지키고 챙겨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 그를 친 형제처럼 따르는 많은 이들이 그의 주위에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다. 또한 사람들을 그 능력과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그의 탁월한 용병술은 오늘날 거대한 뉴스타호를 움직이는 저력이 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소득분배로 인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단결력이 다른 직종에 비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900여 명의 뉴스타부동산그룹의 에이전트들은 그를 중심으로 무섭게 결집되어 있다. 그리고 남문기회장의 움직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한 조직의 보스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하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애정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뉴스타부동산의 에이전트와 남문기 회장을 두고 '뉴스타 남문기교의 교인들과 교주'라고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한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한다. 그의 조직력과 인화력, 친화력으로 그는 기업 내와 부동산업계뿐이 아니라 미주와 전 세계에 상공인, 정치인, 한인리더들을 총망라한 엄청나게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공헌하는 역할들은 많다. 조국에 민간 외교관이요 홍보관으로, 조국 경제 발전의 지원자로, 조국 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로써, 조국 상품의 구매자요 외화벌이의 역군으로, 한국의 위상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써 그리고 조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영토 확장 공헌 자로서의 역할이다.

남문기 회장은 말하기를 "국경을 넘어서 한국인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국가의 힘은 신장되며 우리 민족의 생존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라 한다. 한국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땅은 실질적으로는 한국 땅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 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한민족 공동체란 국내 거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과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도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가 확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외동포는 바로 영토 확장자요, 개척자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벌이고 있는 운동이 바로 '신광개토프로젝트'이다. "광개토대왕이 멀리 만주까지 우리의 땅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미주 땅에 가능한 한 많이 정착하고 이 땅을 차지하여 우리의 영토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광개토 프로젝트

성공학 강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굳건한 믿음의 철학, 열정과 성실이라는 지렛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 특히 미지의 땅에서 꿈을 일궈낸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남문기 회장은 자신의 성공이 한 사람의 신화로만 끝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 그는 또 다른 성공사례들이 그를 이어 끊임없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그는 그만이 가지고 있던 성공의 과정과 노하우를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 노력한다.

전 미주 순회강연을 거쳐 한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이제는 유럽까지도 직접 날아가 그곳의 교민들에게 그 자신의 성공의 비밀을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파하며 그들에게 진한 감동과 함께 도전과 열정,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힘들지만 그 과정 또한 성공한 기업이 해야 할 이익의 사회 환원이요, 몸으로 실천하는 민족애라고 생각하는 남문기 회장의 철학 때문인 것이다.

이 업적으로 뉴욕의 Yeshua University에서는 그에게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 수없이 해 온 강의들이 액기스가 되어 태어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여전히 성공에 목마르다"(금붕어)이다. 이 책을 읽고 보내온 독후감만 300여 개가 된다고 하고, 미국회사까지 찾아와서 미국에 살겠다고 온 사람들만 20여명 이라니 그 책의 후광이 얼마나 넓은가?

이제 그는 성공한 기업 뉴스타그룹의 탁월한 경영자에서 해외 동포의 민족 대표로 부상하고 있다. 그의 뛰어난 경영능력과 조직력, 선구안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미주 동포사회의 요구에, 그는 미국 내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치력부재와 모국에서 마저 소외 당하는 재미동포들의 현주소와 그들의 권익향상에 눈을 돌리게 된다.

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회장에서 전미주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으로, 그리고 2006년도에는 100만 로스앤젤레스 동포들의 기록적이고 파격적인 지지로 한인회장에 당선이 되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많은 일들을 성공시켰다. 2009년도에는 50개 주에 걸쳐 170여 개의 전 미주 한인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선거에서 역대 회장 중 최연소로 최고득표로 당선되어 250만 한인들의 리더가 되었으며 2010년 5월에는 워싱턴 DC에서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선출이 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750만 해외동포의 수장이 되었다. 이제는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해외동포 750만의 대표로서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축하의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바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해외동포들의 진정한 리더로서 해외 한민족을 화합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수고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분주히 한국과 미주, 유럽 등을 오가며 해외동포들의 숙원인 참정권과 복수국적의 정당하고 올바른 정책 실행을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임용근 오리건주 하원의원은 남문기 회장을 두고 '해외한인대통령'이라고 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지도자에서 해외 한민족의 지도자로

Dorothie
재외선거

참정권과 해외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
Feb. 4, 2010 Park Plaza Hotel

재외선거 유권자

김조약국
재외선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순
남문기 의장
방
스페인 한인회

참정권과 복수 국적

참정권은 재외국민들에게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선거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재외국민들은 그 동안의 선거 때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응원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남문기 회장과 재외 동포단체들은 그 동안 참정권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드디어 참정권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그 실행방법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재외 공관투표의 경우도 미주 한인들이 한국보다 97배나 넓은 땅에 단 10곳의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한 현행법은 비상식적이고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미국 내에 한인 외교 공관은 10군데로 50개 주를 관할하고 있다.

미국 남가주지역을 예로 들자면 유권자가 수십만 명이지만 현행 법안에 의하면 투표소는 로스앤젤레스 공관 투표소 한 곳에만 의존하여야 한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안하고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리적 여건 하에서 투표일에 동시에 유권자가 공관으로 몰린다면 공관 업무 마비는 물론 도시 교통자체가 마비가 될 것이다.

복수 국적에 있어서도 국제 결혼한 여성이나 그의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복수국적은 허용되어야 한다. 한식의 세계화에 가장 앞선 사람들도 국제결혼 한 분들이다. 각국의 한인회장들도 이분들이 많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해외문화권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입양아들과 혼혈인들도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스웨덴으로 양자로 간 아이들이 커서 부모나라에 얼마나 많은 여행자들을 데려 오는지 아는가! 750만 해외동포들의 자녀들에게도 1세가 죽기 전에 한국국적을 회복해 주어야 된다. 독일 광부 간호사에서 시작된 해외한인들, 그리고 월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열사의 나라 중동 그리고 미국이 이민사의 시작이 된다. 100여 명으로 시작된 월미도의 이민사와 최근의 인천공항을 상상해 보면 이민자들이 얼마나 성장 했는지를.... 최근에 남문기 회장은 이러한 모든 정책 분석과 이민약사,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그의 예리한 식견을 모아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이라는 책을 써냈다.

지난 2010년 10월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정권과 복수국적'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그 동안 참정권이 관한 저서가 더러 있었지만, 이 저서처럼 해외동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넓은 식견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한 책은 없었다. 아마도 동포 정책을 다루는 관계자, 국내외 동포관련 전문가들은 재외 동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읽어야 할 소중한 자료집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내국인 5,000만(남북합계: 7,500만), 해외동포 750만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동안 해외동포들은 개인적으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주재국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국 수출품의 주요한 소비자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주재국에서 조국이 현대화되고 수출대국을 이룩하는데, 해외동포들의 역할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요즘은 가까운 친척 중에서 외국에 1-2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항공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지구촌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부산, 광주에서 부모를 떠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식이나 무비자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독일 프랑크프르트에 살고 있는 자식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해외동포 750만이 소유하고 있는 땅 넓이를 생각해 보았는가? 그들이 경상도 땅에 버금가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1972년에 폐지되었던 참정권이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도입하게 되었다. 총선에서는 재외국민의 표가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락을 결정지을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는 단돈 300달러로 도미 후 29년 만에 미주 한인최대 부동산 그룹인 '뉴스타부동산그룹'을 일구어 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 때 3조원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소위 언론의 '뉴스타 성공신화' 의 주인공이다.

2006년 직선 LA 한인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등 굵직한 한인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미주 주요도시는 물론이고 전세계 한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든 남문기 이름석자면 다 통한다.

나는 이들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그 들의 조국에 대한 바램을 국정에 반영하고, 그 들의 기여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제 조국이 그 들에게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온 것이다.

내국인 5,000만과 해외동포 750만이 뭉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은 두말하면 잔 소리가 된다. 나는 국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들을 결집시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고, 성취할 인적/물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750만 해외동포는 우리 조국의 앞날을 지켜낼 보석 같은 귀한 존재이며, 조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의정활동계획

1. 의정활동의 목표

오늘날 우리는 국민 5,000만, 해외동포 75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목표를 1) 국민을 최우선 하는 정치, 2) 견실한 경제 재도약, 3) 문화예술의 창달, 4) 성숙한 선진 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750만 재외국민의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바램을 국정에 반영하고 그들을 대변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들을 설정하여 실천에 옮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갈 것입니다.

첫째, 750만 해외한인네트워크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시대는 SNS가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에 Twitter Follower가 111,000명, Facebook 친구가 5,000명, 30,000명의 E-mail 주소, 2,500명의 카카오톡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해외한인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1,000만 명의 우리 한인들을 미국 땅으로 이주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250만 명의 미주 한인들은 정치권, 고급공무원, 첨단기술분야,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주류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실천해 왔던 이 원대한 계획, 즉 '신광개토프로젝트' 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 학군문제, 아파트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750만 동포정책을 총괄할 동포부(재외국민부) 설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동포관련 업무들을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결혼한 분들이나 양자로 간 한인들을 강하게 끌어안겠습니다.

넷째, 선 굵은 보수의 중심세력이 되겠습니다. 시대착오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바탕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여, '한민족 웅비의 새시대' 를 열어 나가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2. 국정 현안과제

첫째, 해외동포 750만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5,000만과 해외동포 750만이 뭉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을 결집시킬 다양한 방법과 아울러 그것을 성취할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750만 해외동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앞날을 지켜낼 보석 같은 귀한 존재이며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둘째, 한미FTA의 중단 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야당은 이번 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하게 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접하면서 우리 정치권 특히 야당의 정치 행태가 과연 함께 정치를 해야 하는 파트너인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최근 그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었지만 해방 이후 최대의 무역상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놀라고 있는 우리 경제발전 뒤에는 이를 소비해 주는 미국 소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미국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도 한미 FTA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셋째, 왜곡된 한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젊은 미국군인 7만 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트남전 미군 전사자 수: 5만 8000명) 이 맹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한미관계를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제대로 한국 정치권에 알리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요즘 일부 정치권과 대학생들의 반미정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한, 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넷째, 전 세계 해외동포를 위한 가교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한인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열망과 본국 정치권에 대한 바램을 제대로 정치권에 전달해야겠다는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미국 250만 명을 포함하여 전세계 750만 해외동포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본국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입니다.

NAMMOONKEY

의정활동계획

3. 의정활동의 연계성과 관련성

대학에서 행정학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해병대를 전역했습니다. 졸업 후 주택은행(현국민은행)의 행원이 되었고, 29세에 단돈 3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가서, 10년 만에 세계 한인 최대의 부동산그룹인 〈뉴스타 부동산그룹〉을 일구어 냈습니다.

첫째, 한인 단체장 경력: 2006년 직선 LA 100만 한인회장, 미주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 등의 한인단체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둘째, 풍부한 전세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소통 능력: 저는 미주의 주요도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많은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과 SNS, E-mail등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국에 봉사할 귀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멘토링 활동: 저는 그 동안 뉴스타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 지역과 정부기관,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등을 두루 다니며 〈남문기성공학 강의〉를 300회 이상 진행해 왔습니다. 이 〈성공학 강의〉는 국내 및 한인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멘토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서 만든 책인 〈잘 하겠습니다〉를 읽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지금도 미국 땅을 밟는 청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교포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경제위기 속에서도 장학 사업은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외국민 참정권 활동: 그 동안 재외국민의 참정권 홍보를 위해서 전 세계 한인사회를 방문해 왔으며, 자비를 들여 언론에 광고를 실어가며, 유권자 등록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편등록제, 순회투표제, 교통편의 제공 등 수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섯째, 전문 분야: 1)부동산 개발, 국토균형 발전2) 재외국민 관리, 영사제도 개선, 국제경제협력3) 해외이주 관계, 북한지역개발

기업인으로서, 또한 한인 단체장으로서 활동해온 경험과 개인적인 모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4. 상임위원회 및 입법활동 계획

첫째, 상임위원회 활동: 본인은'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해외이주법
2) 재외국민등록법
3) 한국국제협력단법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6)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7) 재외동포재단법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 남북협력기금법
10)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둘째, 입법활동 계획: 다음과 같은 입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750만 재외한인네트워크 형성: 세계 주요도시의 한인회, 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세계걸출화인고봉회(세계화인기업가협회)를 모델로 하여 한상대회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재외국민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동포부(재외국민부) 설치: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국민 관련 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동포부(또는 재외국민부)를 설치

3) 해외이주촉진법발의: 외국투자 및 외국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해외이주를 촉진하여, 남북의 인력송출을 위한 특별법 발의하여, 미국 등 외국에 한국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4) 재외국민등록법개정: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재외국민등록 시 유권자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5) 영사제도개선: 여권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여 주

재국의 영사 또는 순회영사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인 조사를 실시하여 가벼운 형사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제도 도입
6) 세계 주요도시 '한류문화플랫폼' 설립: 소위 '한류'의 확산을 위해 영사관이 있는 주요도시에 '한류문화플랫폼'을 설립하여 한류확산과 문화교류 증진

5. 기타 특이사항

저는 미국 뉴스타부동산그룹의 창업자이며, 현재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신선한 피를 수혈 받는 일은 국가의 대계를 수립하고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29년 전인 1982년 단돈 300달러를 가지고 좋은 직장(은행)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미주 한인최대 부동산 그룹인 뉴스타부동산그룹을 일구어 냈습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0여 명의 임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연매출 3조원, 임직원 2,300명을 고용하여 주류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남문기 성공신화〉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미주지역 한인최대주거지역인 LA지역 100만 한인의 대표인 LA한인회장을 직선으로 당선이 되고 미주한인상공인연합회 총회장, 미주지역 250만 한인 대표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지금은 세계 700여 한인회를 대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공)과 750만 해외한인을 대표하는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공) 등을 역임하면서 공인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고 봉사의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저를 그 동안 3선급 의원들이 역임해오던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나, 당시 미국 시민권 자였던 국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표를 내고 부득이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아 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였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주, 중국, 일본, 유럽, 중동 그리고 전 세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두루 다니며, 참정권 문제와 유권자 등록 문제를 한인회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들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그들의 조국에 대한 바램을 국정에 반영하고, 그 들의 기여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에 참여하게 되면 저는 그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많은 방법과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앞서 수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쌓아 올린 명성과 기득권을 버리며, 29년간 살아온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새누리당과 함께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을 바쳐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고, 힘겨운 국민들의 희망이 될 역할 모델로서, 또 한미관계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성공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인으로서, 본인은 더 없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의 멘토
국민들의 희망모델
남문기

NAMMOONKEY

이력서

1. 성명: 남 문 기 (영어이름: Chris Moonkey Nam)

- 개인웹사이트 : www.nammoonkey.com
- 회사웹사이트 : www.newstarrealty.com
- 서울 Mobile: 016-733-9370
- 미국 Mobile: 213)999-4989
- 비서실 대표전화: 213)632-0288

2. Social network Service 시스템 운영(Since 2003)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 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newstarceo
- daum.net 블로그: blog.daum.net/newstarrealty
- cyworld.com 블러그: www.cyworld.com/newstarrealty
- chosun.com 블러그: blog.chosun.com/nammk
- joins.com 블러그: blog.joins.com/newstarceo
- koreadaily.com: blog.koreadaily.com/newstarceo

등을 운영함

- facebook 5,000명 프랜드 확보(2012/01/08일현재) http://www.facebook.com/nammoonkey
- twitter 팔로어 111,000명 (2012-01-08일 현재) http://twitter.com/nammoonkey
- 이메일: ceo@newstarrealty.com

(3만명이상 주소록 확보:이메일로 3만 명 이상과 소통)

남문기의 방송과 언론에 소개된 내용:

- www.nammoonkey.com/nam_in_media.asp

3. 현주소

한국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
더 클래식 500 A동 1704호, 우편번호143-853

미국주소: 3030 W. 8th St. #302,
Los Angeles , CA 90005, U.S.A

본적: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구암동 229번지

4. 학력

- 건국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2009년 8월)
- Yeshua University (뉴욕):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2008)
-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학위논문] 노사협의회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1982년)
-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1980년)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1972년)
- 경북 의성중학교 졸업(1969년)
- 경북 의성군 점곡 구암초등학교 졸업(1965년)

5. 경력사항

- 現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공)…750만
- 現 세계한인회회장대회 의장(공)—700여개 한인회
- 現 한나라당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
- 現 (사)한.미친선연합회 총재
- 現 (사)전국통합시도민연합회 공동총재 (대표총재 안상수)
- 現 세계독도사랑총연맹 명예총재
- 現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예 총회장
- 現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 홍보대사
- 現 인천광역시 국제고문
- 現 제7대자연경관선정추진위원회 해외 위원장
- 現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명예 홍보대사
- 現 뉴스타그룹 명예회장 50여 곳 지사 (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
- 現 세계한인부동산중개업 총연맹 2대 총재
- 現 해외한민족선플리더스클럽 총재
- 現 건국대학교 미국분교(Pacific State University) 이사
- 前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역임 (미주 한인250만 대표) http://www.koreanfedus.org
- 前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 (미국 한인 사업체 16만 업소)
- 前 로스앤젤레스(직선) 한인회장 (100만 동포, 2006-2008)
- 前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1998-2006)
- 前 재미해병대전우회 회장 (2001-2002)
- 前 미주 2002년 한일 월드컵 후원회장 (공, 2001-2002)
- 前 미주남씨종친회 회장 역임(1999-2006)
- 前 대한민국 민주 평화통일 자문위원 다수
- 前 미래은행 이사장 및 이사 역임
- 前 주택신문사 미주 지사장(대표 이심 회장)
- 前 남가주한인경제단체장 부회장 (1996)
- 前 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회장 (2000)
- 前 오렌지카운티한인축제 대회장 역임 (2000)

- 前 재미오렌지카운티해병대 전우회장 (1991–1993)
- 前 오렌지카운티한인회 부회장 (1992–1994)
- 前 남가주건국대학교 동문회장 역임 (1999–2000)
- 前 한국주택은행 근무 (1980–1982)
- 前 주택은행노동조합 창립 맴버
- 前 건국대 법정대 학생회장 역임 (1978–1979)

6. 뉴스타 그룹 (www.newstarrealty.com)

- 前 뉴스타부동산 대표–1,000여명 이상의 에이전트 및 직원
- 前 뉴스타부동산학교
  –(LA를 포함 4곳의 분교 약 10,000명정도 배출)
- 前 뉴스타에스크로
  –(LA본사,LA동부 지사,가든그로브 지사 3지역)
- 前 뉴스타보험
- 前 뉴스타투자그룹
- 前 뉴스타프라퍼티매니지먼트
- 前 뉴스타웹컨설팅(NIT) (newstarrealty.com)
- 前 뉴스타광고기획사
- 前 뉴스타장학회 (Since 2,000 약1,000여 명에게 지급)
- 前 한국부동산 미주지역 분양대행 전문회사

7. 초청 강의 및 강연활동(HOW TO SUCCEED를 중심으로)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특강
  (미국의 부동산 제도와 특징)– Since 1995년 다수
-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특강
  (미국 부동산 제도와 한국 부동산 제도의 차이점)1997년
- 경희대 행정대학원 특강 강사
  (미국 부동산 제도와 한국 부동산 제도의 차이점)
  Since 1999년 다수
- 경희대 학부 특강(타이틀과 에스크로란) Since 1999년 다수
- 의성중학교(경북)에서 '미래를 위한 꿈' 강의
  (장학금을 전달) 1999년
- 연세대 경영대학원 특강
  (미국은 어떤 나라이며 투자 시기는?)2001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강
  (미국, 투자할 시기인가?) 2002년
- CSU 풀러톤대학 초청 특강
  (미국에서 부동산 직업이란) 2002 년
- CSU샌크라맨토대학 초청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가 성공하는가?" 특강 2003년
- 한국주택공사 초청: 미국의 금융제도와 현황 특강 2004년
- 우리은행 기업여신센터 특강
  (미국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2004년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연수초청 강의
  (주제: 변화와 혁신) 2005년
- 부동산서브㈜ 초청 특강
  (부동산 에이전트란 무엇인가?)2004–2005 년
- 서울지역 여자부동산 에이전트 대상
  "미국부동산에 대하여"특강 2005–2006 년
- 전남도의원 미국 방문 시
  (미국의 부동산 제도와 에이전트의 지위)특강 2005년
- 라디오코리아 (LA소재) 직원대상
  "남문기 성공학 특강 2005년
- 미래은행 직원대상 (LA 소재)
  "남문기성공학 특강 2005년부터 다수
- LA한인회 주최: 미국의 부동산 경기 대책 특강 2005년
- 미주여성경영인을 위한 특강
  (LA 부동산의 장점은 무엇인가?) 2005년
- 뉴욕 플러싱, 교민상대 강의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 2006 다수
- 캔사스 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성공하는 법칙) 2006년
- UCLA 한국학회에서
  "열정을 가져라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 2006년
- 영월 석정여고와 영월종고 합동 강연
  (꿈은 꿈 꾸는 자라야 이룰 수 있다) 2007년
- 경남 창원 전문대에서 특강 (부동산의 미래)2007년
- 마산, 부산, 대구지역 보름달회 초청 특강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 2007년
- 서울로타리클럽 특강
  (미국에 한인 대통령을 만들자) 2007년
- 시카고, 토론토 해병대전우회
  (해병대식 창조적 경영과 남문기 성공학은?)
- 중국 북경, 연변, 심양, 청도에서 성공학 강의
  (해외에서 사는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2007년
-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 상대(변해야 산다)특강 2008년
- 캐나다 토론토 교민들대상 특강
  (이틀간 800명 참석=남문기 성공학 강의) 2008년
- 수협은행에서 강의
  (미국 투자이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2009년
- CBS(목동) 에서 강의200여명 참석
  (우리세대에서 미국에 한인대통령을 만들자)2009년
- 서울로타리클럽 강의 다수
  (감동을 주는 경영인이 되자) 2002–2010년
- 재경경북여성향우회에서
  (글로벌 시대에 여성들이 나아갈 길) 2010년
- 세계선플리더스클럽에서

NAMMOONKEY

(칭찬은 긍정을 낳는다) 2010년
- 오렌지카운티상공회 조찬모임(김진정 회장)
  (일에 미쳐라 그리고 감동을 주어라)2010년
- 경기도청에서 강의(변화는 또 다른 미래를 낳는다) 2011
- 선플달기운동본부(총재: 민병철박사)에서 강의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2007
- 성결대학교 초청 성공학 강의(젊음은 희망이다) 2010
- 평택대학교 전문인과정 특강
  (미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2010년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의
  (언론인이 정직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0년
-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강의
  (미국에 한인 대통령을 만들자) 2010년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특강
  (미국 부동산의 세금제도) 2010년
- 중앙대학교 주택 및 부동산 최고경영자 강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갖춰야 할 덕목) 2011년
- 서울여자대학교 부자학 강의(미쳐야 성공한다) 2011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공학 강의(꿈은 현실이다) 2011년
- 인천부동산협회 포럼 초청 강의
  (한.미간의 부동산 제도의 차이)2011년
- 강릉 원주대학교 특강
  (해외로 나가야 한국이 산다)2011년
- 9인회 포럼 특강(서울)–해외 참정권의 의미/2011년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특강
  (왜 복수국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2011년
- 서울소망교회 성도 (대표 박세환장군)
  –미국을 알아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 2011년
- 공주대학교 특강
  (해외동포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2011년
- 임페리얼교회 특강
  (해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영토는 한국땅이다)2011년
- 뉴욕 퀸스 및 맨하탄에서 "남문기 성공학 강의" 2011
- 청년기업인포럼 특강(서울)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2011년
- 가평고등학교 미국에 대한 특강
  –미국을 알면 세계를 안다 /2011년
- 서일대학교 미국 연수생 대상 LA에서 특강
  –건강한 정신이 성공한다)2011년
- 해병대사령부–(해병대는 실패하면 안된다) 2011년
- 북미주 전역 "남문기성공학" 강연
  (03년3월9일부터–현재까지 계속)
- 밴쿠버에서 남문기 성공학 강의
  (캐나다에 한인 수상을 만들자)2011년

•캐나다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및 일본, 중국, 영국, 이태리, 독일 등 해외 동포 사회는 다 다닌다. 해외동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뉴욕 맨하탄, 퀸스지역, 뉴저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버지니아, 조지아 아틀랜타, 하와이, 플로리다 올란도, 잭슨빌, 네바다 라스베가스, 아리조나 피닉스, 시애틀, 콜로라도 덴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택사스 달라스 등 수십 번의 전미주 투어를 통해 현지 교민 및 부동산 관계자 대상 강의를 하고 있다.(약200여 회 이상)

- 뉴스타 그룹의 직원들 대상으로는 모티베이션 특강을 자주 한다. 강의 중에는 '이래야 당신도 성공한다'로 12시간 동안 강의를 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1999년)

8. 칼럼

- 미주한국일보 칼럼(How to succeed를 중심으로) 5년간 연재(250여회) – www.nammoonkey.com 참조 현재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가제)…집필 중
- 미주중앙일보와 주간지, 잡지 등에 칼럼 다수 게재
- 한국의 신문과 웹사이트를 통한 칼럼 게재
- e월간조선 '잘하겠습니다' (김용삼 편집장)연재/2006)

9. 수상

-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Barack Obama) (2011)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Presidential Champion Gold Award, President's Challenge (2005)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 Bush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2010) –Member of the Assembly Mike Davis (48th District)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Office of City Attorney (2010) –Los Angeles City Attorney Carmen A. Trutanich
- Certificate of Special Congressional Recognition, United States (2009)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of Congress Linda T. Sanchez
- Certificate of Appoint, The State of Tennessee (2009) –Colonel Aide de Camp By Phil Bredesen, Governor
- California State Controller Recognition, John Chiang (2008)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2008)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alifornia Legislature (2008) –California State Assembly Paul Krekorian (43th District)
- Certificate of Recognition, State of California (2008) –Member of Congress Diane E. Watson (33rd Congressional District)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LA Police Department –Chief of Police William J. Bratton
- California State Controller Recognition, State of California (2008)–State Controller John Chiang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State of California (2008)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alifornia Legislature (2008)
–California State Assembly Paul Krekorian (43th District)
• Certificate of Recognition, State of California (2008)
–Member of Congress Diane E. Watson
(33rd Congressional District)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City of Los Angeles (2008)
–Mayor Antonio R. Villaraigosa,
Councilmember Tom Labonge(4th District)
–Councilmember Herb J. Wesson, JR.
(10th District)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City of Los Angeles (2008)
–Councilwoman Jan Perry (9th District)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alifornia Legislature (2008)
–Member of Assembly Mike Davis
(48th Assembly District)
•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Resolution (2008)
–Member Michelle Steel (Third Member)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ity of Los Angeles, State of California (2008)
–Councilmember Bernard C. Parks (8th District)
• Certificate of Commendation,
County of Los Angeles (2008)
–Chair of the Board, Supervisor Second,
First, Third, Fourth, Fifth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2008)
–Member of Assembly Mike Davis (48thDistrict)
• Certificate of Achievement,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2008)
–Assemblyman Mike Davis (48th District)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Office of City Attorney (2008)
–Los Angeles City Attorney Rockard J. Delgadillo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UCLA (2007)
–Staff of KCN and Hanoolimn
• Certificate of Congratulations,
County of Los Angeles (2006)
–Mayor Michael D. Antonovich
• Certificate of Congratulations,
City of Los Angeles (2006)
–Councilmember Tom Labonge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ity of Irvine (2006)–Mayor Pro Tem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ity of Irvine (2006)–Mayor Pro Tem
• LA County Commendation
(2005, County of Los Angeles)
• Certificate of Recognition,
State of California (2005)–Senator Jack Scott
• Certificate of Recognition,
Council of Los Angeles (2005)
–Council member Bill Rosendahl (11th District)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Council of Los Angeles (2005)
–Council member Herb j. Wesson, Jr. (10th District)
& Council member Tom Labonge (4th District)
• Commendation County of Los Angeles (2005)
–Supervisor Yvonne. B. Buke (2nd District)
• Presidential Champion Gold Award,
President's Challenge (2004)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 Bush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2004, State of California)
• The Most Successful Business of 1994 Award,
Korean Chamber of Commerce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2004)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ssembly
• Appreciation Award by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O.C. (2002)
• Certificate of Achievement (2001, ERA)
• Leadership Award by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 Edward R. Royce (Thirty–ninth District CA, 2001)
–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 Loretta Sanchez Member of Congress
– President of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2000)
• Certificate of Recognition,
State of California (2000)
– Senator Joseph L. Dunn (34th District)
–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 Certificate of Appreciation (1998, Pacific State University)
• Leadership Award by the O.C.
Minority Business Council & Governor Pete Wilson
• 국기원 감사장 – 명예 단증 5단
– 국기원 원장 강원식–2011
• '자랑스런 건국인상' 수상(건국대 총 동문회 2008년)
• 공로장 –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 총재 김명환2008
• 99년 소수민족기업협의회 한국인 최우수 경영인상 수상
–2000
• 세계 ERA 37개국 3,700여 개 오피스 중 세일즈 1등
(2005,2006년)
• 뉴스타부동산, 상공회의소 선정
95년도 최우수 모범업소로 선정–1995

*그 외 지역 봉사 활동으로 공로패(장), 감사패(장)
등 300여 개 이상 수상

남문기 언론보도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09.22.11] 남문기 자문위원장 한인목사 초청 대화
[09.16.11] 한나라 재외국민위 자문위원장에 임명
[07.19.11]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에 남문기...
[10.25.10] 남문기 회장 서울서 출판기념회
[05.17.10] 캐나다 한국일보 회장님 인터뷰
[05.07.10] 순회,추가 투표소 도입해야
[05.10.10] 제8차 해외한민족 대표자회의 폐막
[05.07.10] 미주한인 목소리 모국전달 창구 역할
[12.03.09] 재외동포 참정권 등 권익 챙기기 잇단 성과
[11.17.09] 미주지역도 선플운동 자리잡길
[06.01.09] 미주 한인사회 발전 협력
[08.25.09] 남문기 총연회장 건국대서 명예박사 학위
[08.14.09] 남문기 총연회장 건국대 명예 정치학박사
[06.10.09] 남문기 미주총연 회장선출 축하만찬
[06.01.09] 남문기 美한인회총연합회장 당선 축하연
[06.01.09] 미주한인총연합회 신임 남문기 회장 축하연
[06.02.09] 250만 한인 목소리 대변
[06.01.09]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 선거 남문기씨 당선
[05.14.09] 미주총연 정치단체로 만들 것
[05.21.10] 남문기후보 중남부유세
[05.27.09] "동포 권익위해 앞장서겠다"
[05.28.09] 미주한인회총연 회장 출마 지지 호소
[05.19.09] 총연 리더십 내가 세우겠다
[05.13.09] 이중국적 실현 - 투표권 확대
[04.18.09] 이민사회의 키워드는 성공입니다.
[05.07.09] 미주총련 회장선거 '열전'
[02.12.09] 남문기 미주총련 한인회 총련 회장 출마
[01.06.09] 전세계전,현직 한인회장들 '한민족 네트 ....
[12.02.08] ERA'프랜차이즈 떼내고 뉴스타 제2창업
[11.13.08] 아버지 이어 최고 에이전트 목표
[07.09.08] 초대석 - 남문기 뉴스타부동산그룹회장
등 500여회

NEWSIS

[09.15.11] 재외국민위 자문위원장에 남문기씨 임명
[04.15.11] 축사하는 남문기 회장
[03.21.11] 제주도 남문기 미주 한인대표 홍보대사 ...
[03.16.11]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추진위원장 위 ...
[09.01.09] 인사말 하는 남문기 회장
[09.01.09] 공로패 받은 남문기 회장
[05.14.09] 인사말 하는 남문기 미주한인총연합회장
[09.01.09] 미총연 회장 초청 축하 모임에서 인사말 ...
[08.26.09] 오 명 건국대 총장, 각계인사 'KU홍보대 ...
[08.24.09] 건국대 남문기 명예정치학박사의 인사말
[06.26.09]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6.26.09] 당선을 축합니다
[06.26.09] 참석자들과 파이팅 외치는 남문기 신임 ...
[06.26.09] 반갑습니다
[06.26.09] '당선을 축합니다'
[06.26.09] 당선 축하선물로 받은 서양화
[06.24.09] [인터뷰]미주한인총련 총회장 동문 당선 ...
[03.03.08] 빨강머리 앤과 검은머리 외국인

스포츠한국

[07.16.07] 단돈 300달러가 일군 '중개업 성공신화'
[06.25.07] 미국 부동산 투자 매력 여전
[06.24.07] 재외동포에 참정권 보장해 경제력 높여야
[05.15.06] 한국일보 당선기사

중앙일보

[09.15.11] 한나라 재외국민위원회 자문 위원장...
[08.07.11] 한나라당이 해외한인사회에서 지지 · 후원...
[07.18.11]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남문기씨
[04.24.11] 너무 안타까워 부랴 부랴 달려 왔죠
[04.12.11] 우편투표 도입해야,재외선거법 개정 서 ...
[12.30.10] 복수국적 전면 확대 하는게 국익에 외려...
[06.21.10] '복수국적 허용해야 한국계 오바마도 나와'
[06.16.10] '2010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석 한인회 ...
[05.10.10] 남문기 총연 회장, 한민족협의회 공동의 ...
[01.24.10] 여야 동포 정책 비교 '정치포럼' 개최
[01.21.10] 한민족대표자들 워싱턴으로…해외한민 ...
[01.04.10] 출발 2010 한인단체장 신년계획
[08.24.09] 미주총연 남문기 회장 모교서 명예 정치 ...
[06.02.09] 이중국적 허용 위해 적극 노력 한국기업 ...
[06.02.09] 미주총연 새 회장 남문기씨 당선 김병직 ...
[06.01.09] 한국 대기업 동포 환원운동 남문기 제23 ...
[05.31.09] <인터뷰> 남문기 미주총연 신임회장
[05.31.09] 미주총연회장, 남문기씨 당선
[05.31.09] 미주 총연 회장 남문기 당선
[05.26.09] 미주총연 저에게 맡겨 주세요
[05.15.09] 총연, 정치적 입김 더 강해져야
[05.12.09] 미주총연 회장후보 공개 토론회
[xx.xx.09] JBC AM1230 이브닝포커스남문기 회장 ...
[02.11.09] 남문기 회장, 미주총연 회장 출마 회견
[12.02.08] 뉴스타 부동산, ERA와 관계 청산 독자 ...
[11.12.08] 남문기 회장이 보는 시장 전망 '고민중이 ...
[11.12.08] 뉴스타 부동산, 매출 1위 최대 부동산 그룹
[10.26.08] 요즘이 오히려 미국 부동산 투자 노릴때 ...
[07.04.08] 소통 · 협력속 한 걸음 전진 LA 한인회장 ...
[10.29.07] 재외동포 거상들 부산에 모인다
[11.23.05] 맨손 출발 신화 일궈 한인사회 넘어 ...
등 500여회

파이낸셜뉴스

[06.16.11] 한나라 재외국민위 자문위원장에 남문기씨
[06.14.10] <인터뷰>남문기 미주총연 회장을 만나 ...
[06.13.10] 남문기 미주총연 회장 '복수국적 허용 통...
[05.10.10] 한민족협의회 공동의장에 남문기씨
[04.22.10] 미주총연 남문기 '우편투표 , 재외국민 ...
[04.22.10] 미주 한인총연합회장 남문기
[01.30.10] 남문기 회장 '미주 한인회 아이티 도와야'
[11.27.09] 부동산은 '미국 경제의 지휘자' 회복세 ...
[11.26.09] 부동산은 미국 경제의 지휘자
[08.25.09] 미주총연 남문기 회장 건국대 박사학위 ...
[06.30.09] 이제 미국시장 공략 나설때
[11.03.08] 해외동포 미분양 사세요

세계일보

[09.08.09] '한인 대통령 만들자'
[08.27.09] 뉴스타 부동산 그룹 남문기 회장
[06.23.09] 미주 한인총련 남문기회장 축하연 개최
[01.06.09] 해외교포, 지금이 한국부동산 구입 회적기
[10.05.07] 재외한인은 글로벌시대 한국의 자산

재외동포신문

[09.16.11]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자문위원장 선임
[04.24.11] 뺑소니 사고로 위독한 한인청년 찾아가
[06.08.09] [인터뷰] 잘 하겠습니다
[06.08.09] 남문기 제23대 미주총연 회장 당선

연합뉴스

[09.16.11] 한나라당 재외국민자문위원장에 선임
[03.21.11]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제주도 홍보대사에
[10.12.10] 남문기 미주한인총연합회장
[10.12.10] 미주동포들에게 책 3만권 전달
[09.07.09] [연합초대석] 남문기 미주총연 회장
[09.01.09] 남문기 미주한인총연합회장 조찬회
[09.01.09] 남문기 미주한인총연합회장 초청 조찬회
[01.21.10] 5월초 워싱턴서 해외한민족대표자대회 ...
[09.09.09] 연합초대석 -남문기 미주총연 회장
[08.31.09] 남문기회장 국회서 名博축하모임
[08.26.09] KU홍보대사 위촉식
[08.23.09] 채의숭 · 남문기 회장 건대서 名博
[08.23.09] 남문기 회장 건대서 名博
[08.24.09] 채의숭, 남문기 회장 건국대서 名博
[08.24.09] 건대 후기 학위수여식
[08.24.09] 미주총연 남문기 회장 건국대서 名博
[07.21.09] <인터뷰>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06.26.09] 남문기 미주한인회장 당선 축하연
[06.25.09] 미주총연 남문기 회장-이중국적 인정해야
[05.31.09] <인터뷰> 남문기 미주총연 신임회장
[02.29.08] <인터뷰>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남문기 ...

매일경제

[02.02.10] 재외동포 참정권 인정 의미는?
[05.31.09] 미주총연 신임회장에 남문기씨 당선
[05.31.09] 미주총연 신임회장에 남문기씨 당선
[10.17.07] 미국 부동산 위기, 충분히 극복할 것
[09.16.07] 해외 한인 정치인 한자리에 모인다.
[11.08.07] 청소부서 우뚝선 남문기 회장 '기부 ...

worldKorean

[07.21.11] 재외국민위원장 남문기 인터뷰
[07.19.11]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남문기씨 임명
[03.22.11] 제3회 월드코리안 리더스 포럼서 특강
[02.01.11]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해야할 일
[09.19.10] [기고] 남문기회장, 유럽종횡무진기

경향신문

[06.15.10]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03.07.16] 맨손으로 美최대 부동산그룹 일궈
[07.04.06] 아메리칸 드림 쟁취한 청소부
[10.04.05] 선진 부동산 중개제도 전수

헤럴드경제

[01.07.10] 내년 미주한인의 날 백악관 개최 추진
[12.18.09] 내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주 107년
[06.02.09] 2012년 한국 총선 도저계획 불변
[06.16.10] 진화하는 남문기 '거침없는 정치 행보'주목

ChosunMedia 조선뉴스프레스

[02.13.12]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률 잘해야 5% ...
[09.xx.04] 월간조선 & 뉴스위크
[04.xx.04] 300달러로 이룬 아메리칸 드림

Los Angeles Times

[05.05.11] What is the best way to ensure the ...
[03.24.11] My dream doesn't stop
[02.01.11] A 'Three Hundred Dollar' Success Story

선데이저널

[02.16.12] LA 남문기 회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
[03.13.11] 우리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06.06.10] 글로벌 리더로 뛰는 해외한민족대표자 ...

기독일보

[09.15.11] 재외국민위 자문위원장 임명
[07.19.11] 본국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스포츠칸

[08.15.08] 在美 부동산그룹 '뉴스타' 남문기 회장 ...
[11.05.07] 남문기 LA한인회장, 빌딩청소부에서 백 ...

부동산매거진

[01.03.08] '남문기'는 어떤 사람?
[12.xx.07] 부동산 매거진 12월호

GULF KOREAN TIMES

[01.26.12] [인터뷰] 단돈 300불 들고 날아간 미국 ...

코리아나 뉴스 The Koreana News U.S.A.

[07.26.11] 재외국민위원장, 남문기

EXPO journal 엑스포저널

[07.07.11]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세계로...

시사오늘 시사ON

[06.27.11] 재외국민 투표…750만 하나로 모으는 힘

교포신문 KyopoShinmun

[10.05.10] 독일 방문 "한국정부 복수국적 허용 750 ...

선진한국

[10.xx.10] 선진한국 2010년 10월호

스포츠조선

[11.17.09] 재외동포 권익위해 본국투표 참여 필요.

코리아타운 데일리

[10.xx.11] [내고향 10월호]재외국민의 대변인 남문기
[09.22.11] 남문기의 노이즈마케팅 신화는 어디까지
[03.22.11] 남문기 미주총연회장, 제주도 홍보대사 ...
[05.13.10]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 ...

제주일보

[03.22.11] 남문기 회장, 道 홍보대사
[10.28.08] 세계한상대회 참가자들 면면과 기업규 ...

한국경제

[08.30.09] 단기하락 가능성 있지만 지금이 투자적기
[08.23.09] 남문기 · 채의숭 회장 건국대서 名博
[07.15.09] 수요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Korea Weekly

[01.20.12] 미주동포사회 참정권,한국 대선 지각 ...

the INTER VIEW

[07.22.11] [창간특집 특별대담] 남문기회장

미디어제주

[03.22.11] 남문기 미주총연회장, 제주도 홍보대사 ...

헤드라인제주

[03.21.11] 남문기 미주총연회장, 제주도 홍보대사 ...

Jejusori.net

[03.22.11] 미주한인회 남문기 총회장, 제주도 홍보 ...

Jemin.com

[03.21.11] 미주총연 총회장 남문기씨 제주특별자 ...

제주인터넷뉴스

[03.21.11] 남문기 미주한인회장 제주홍보대사 위 ...

주간동아

[04.12.06] 뉴스플러스

OK TIMES

[09.xx.07] 남문기 그는 누구인가?

ROOTIZ

[01.14.09] 남문기 회장 "건설사들 아직 정신 못차려"
[04.15.08] 뉴스타敎 교주, "나를 믿고 따르라"
[04.18.08] '루티즈- 뉴스타' 콘탠츠 제휴

아시아투데이

[03.25.11] 해외동포 750만시대, 언제까지 내버려둘 ...
[10.25.10] 재외동포 정치력 · 영향력 위해 정부 노력 ...

스포츠서울닷컴

[06.21.11] 201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 선출
[03.18.10] 남문기 회장 '한국인이 세계의 땅을 사 ...

재경일보

[06.20.11] 해외참정권 등록, 투표 쉽게 해줘야
[10.15.10] 남문기 미주한인총연합회장 복수국적 ...

NEWSWiRE Korea Press Release Network

[08.26.09] 오 명 건국대 총장, 'KU홍보대사' 위촉
[09.21.09]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출범

AM1660 KRB KOREAN RADIO BROADCASTING

[07.19.11] 남문기 씨, 한나라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

보스톤코리아

[06.27.11] 2012년 세계 한인회장대회 의장 선출

천지일보

[04.06.11] '페이스북 · 애국심'만으로 대한민국 홍보

아주경제

[03.22.11] 300달러신화 남문기 회장의 다음 승부수는

서울경제

[03.21.11] [동정]남문기 미주총련회장

Newstoday

[08.04.09] 제2의 한인 오바마, 반드시 탄생합니다.

onbao

[07.02.07] 300달러로 매출 30억 기업만든 남문기 ...

대구인터넷뉴스

[10.19.10] 동산의료원, 해외동포 의료관광사업 확대

친안일보

[11.24.09] 단국대 재외동포연구소 개소식

PRESSian

[04.06.07] 재외동포에게도 당연히 참정권 줘야죠

시사 INTERVIEW

[10.08.10] 성실함 하나로 자수성가 발판 마련, 진정 ...

인천일보

[10.01.07] 개발 앞서 전문인재 양성을

iTODAY

[07.12.10] 대한민국 영토 확장 꿈꾸는 미주 한국인 ...

노년시대신문

[09.28.07] 한인 1천만명 돼 미국 주류사회 진입 했 ...

캐나다저널

[07.09.09] 미주총연 신임회장에 LA한인회장 출신 ...

크리스찬 월드 THE CHRISTIAN WORLD

[08.19.09] 미국 50개주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는 미 ...

新東亞

[04.xx.06] 한국인 시장, 시의원, 관료, 시민인 ...

프라임경제

[09.11.09] 세계금융위기 1년 - 부동산, 지금이 투자 ...

THETIMES

[12.12.08] 이민 역사상 가장 성공기업 일굴 남문기 ...

사람과사람

[07.07.09]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보: 부동산 업계의 ...

한겨레 THE HANKYOREH

[08.24.09] 미주총련 남문기 회장 건국대서 명예박사

KOREABRAND.net

[09.06.10] 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 남문기 ...

鮮京日報

[10.07.10] 남문기, 그는 누구인가?

한국기자협회

[04.21.10] '기협-한인총회 MOU 큰 기대'

검찰타임스

[10.12.10] 남문기 회장.피와 땀으로 아메리칸 드림 ...

www.cnews041.com 뉴스041

[01.12.09] 호서대,미주한인 회장단에 홍보대사 위촉

한국주택신문

[06.18.10] '국내 부동산 시장에 새바람 일으킬 것'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06.25.09] 남문기 미주한인총련회장 당선 축하 리셉션

MT 머니투데이

[10.15.10] '해외동포 소중한 한표 행사 위해 최선'

chosun.com

[11.17.08] 한상대회 참석,남문기 뉴스타부동산그 ...

서울포스트

[11.18.10] 2012년 재외동포, 대대적으로 참정권 행 ...

Londontimes.TV

[09.17.10]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남문기의장 ...

한국화보

[06.xx.06] 한국화보 6월호

아이비타임즈

[03.29.10] '제2의 오바마, 이제 한국에서 나와야'

每日新聞

[05.05.08] 남문기 LA 한인회장, 고향 의성 방문

BUCKS

[04.xx.06] 벅스 4월호 기사

선플달기운동

[08.13.07] 선플달기 캠페인

建國家族

[10.13.09]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신화 재미동포 권 ...

우리신문

[04.06.06] 우리신문 여론조사

데일리안

[11.06.07]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로스앤젤레스한인회

[xx.xx.06] LA 한인선거 관련 기사 모음

KBS

[06.20.11] KBS 세상의 모든 지식
[07.20.10] KBS World Radio 한민족 네트워크 ...
[04.17.09] 2009 미주한인총연회장 선거 2파전
[04.16.09] 미주한인총연회장 출마 기자회견
[03.31.09] 한우회 남문기후보 지지 표명
[09.xx.08] 민간 외교관 도전하는 "아메리칸 드리머"
[09.18.06] KBS 김동건 한국, 한국인
[05.30.04] 유애리의 나의삶, 나의 보람 1부/ 2부
[08.28.00] 한민족 리포트 - 300불로 이룬 남문기의 어메리칸 드림 1부 /2부 /3부

radioKOREA

[01.06.12] Morning News 인터뷰
[07.30.11] 최영호의 Weekend Special 인터뷰
[08.26.09] 미주 총연 확대개편,이제는 50개 주지역 ...
[06.01.09] 미주총연 회장선거, 남문기 전 LA 한인 ...
[05.12.09]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후보 대토론회
[05.12.09] 미주총연 회장후보 대토론회 - 보도
[02.11.09] 라디오 방송
[11.02.07] 시사좌담 1540 대담 방송 1부 / 2부

KBCtv

[10.15.11] 남문기 위원장 인터뷰
[05.30.09] 제23대 미주한인총연합회 총회장 당선

LA 18

[07.22.11] 남문기 재외국민 위원장 단독 인터뷰

안미방송

[12.20.10] 미주총연 연평도 포격사건 기자회견

ABC7

[07.24.07] ABC7 로컬 뉴스 인터뷰

WKTV

[04.17.10] TV 초대석인터뷰 남문기 미주총연회장

YTN

[05.17.11] YTN 주최 재외국민참정권공청회
[04.16.11] 참정권 시대를 맞은 미주 지역의 분위기
[06.17.10]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개막 한인회장 ...
[02.04.10]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해주는 것이 ...
[09.01.09] 재외동포 참정권' 구체적 방안은?
[06.28.09] 남문기 미주한인회장 축하연에 양당 ...
[06.26.09] 해외동포 투표권 달라진 위상 남문기 ...
[03.06.08] 새정부에 대한 동포들의 반응
[09.22.07] LA 동포사회 현안은?
[07.02.07] 미국 동포사회, "참정권 획득 환영"
[04.05.07] 미국이민과 부동산 시장 동향

MBC

[xx.xx.08] 시사Plus 한상대회 그한계와 가능성은?
[10.10.08] 안동MBC 뉴스투데이
[12.11.04] 미국이민, 땀과 꿈의 20년 1부 /2부

라디오한국

[01.03.11] 시애틀 라디오한국 6시 뉴스 인터뷰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11.02.09] 의료관광,재외동포 모시기

KTAN

[02.11.09] 남문기회장 미주총연 회장선거...

WBS

[11.19.09]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총회장

ABC7

[07.24.07] ABC7 로컬 뉴스 인터뷰

SBS

[02.07.10] 선데이뉴스플러스 이슈인물 남문기회장
[01.21.10] SBS전망대 -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 ...
[12.20.08] 지금이 부동산 투자 적기, 한국아파트 ...
[02.25.08]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

tvk

[09.21.11] 남문기 자문위원장, 재외국민 기본권 ...
[xx.xx.10] 한국정부에게 바란다.
[03.xx.10] TVK 방송국 창사 5주년 축하 메세지
[05.xx.09] 남문기 후보 미주총연 총회장 선거 ...
[05.xx.09] 남문기 회장 미주총연 회장선거 공식 ...

대진대학교

[07.04.11]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특강

미주한인회총연합회

[05.xx.11] 임기를 마치는 남문기총회장의 인사말

RADIO SEOUL

[12.29.10] 남문기 회장님 복수국적 특별 대담

CTS 기독교TV

[08.14.09] CTS 초대석 300불로 이룬 아메린칸 ...

RTN 부동산TV

[06.xx.10] 윤방부 박사의 건강한 인생, 성공한 ...

국악방송

[05.09.10] 국악방송 991 일요 초대석

책은 자신을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다

저서

책은 자신을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며, 온 갓 풍문, 유언비어로 퍼지며 '카더라 뉴스' 가 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책을 씀으로 인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도 된다. 남문기 회장의 저서들은 자신의 자랑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전과 성공을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역대 성경의 시작처럼 이민, 이주의 도전적인 삶 속에서 기적을 맞볼 수 있었듯이 남문기 회장은 직접 도전하고 체험하여 진흙탕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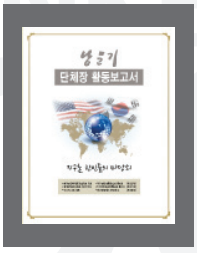
#1. '미국부동산(1998년, 주택문화사)' 는 그가 대륙을 발로 뛰며 한반도 땅만큼이나 팔고 사며 느끼고 부딪친 것들을 적은 실무자들을 위한 투자가이드이다.

#2. '잘 하겠습니다(2006년, 더북컴퍼니)' 는 미국 시작을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기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떨까?라는 식의 물음표를 던져 준 것이다. 그리고 방향 제시를 분명이 했다. 그 것이 곧 뉴스타부동산 그룹의 성숙함과 한인을 위한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고 고객들에게 다짐하는 말이 된 것이다.

#3. '미국에 한인대통령을 만들자(2009년, 도서출판 아이북)' 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전부터 미국은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1,000만 명의 한인을 미국으로 이주시켜 한인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그려보는 책인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같은 마이너리티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남문기의 꿈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되었다..

#4. '참전권과 복수국적(2010년, 도서출판 예가)' 는 750만 재외국민을 본국의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해 한국의 글로벌 시대를 열어 가자는 교본이다. 이 책은 2010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 /재계 인사들과 5,000여 명이 모여 세기적인 관심을 보인 책으로 지금 그 참정권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책이다.

#5. '나는 여전히 성공에 목마르다(2010년, 금붕어)' 는 그의 끊임 없는 열정을 보여주며 도전하자는 성공 비젼의 드라마이다. '잘 하겠습니다' 와 '미국에 한인대통령을 만들자' 의 합성본이기도 하다.



#6.' 지구촌 마당쇠 남문기(2012년, 나컴)' 은 그가 최근 10여 년간 LA한인회장, 상공인 총연합회 총회장,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등으로 활동한 기록서이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한인을 만나 눈물을 거두며 희망을 준 감동의 보고서 형식이다.

이외에도 '맨손으로 별을 딴 사나이' 등 문학가들이 남문기를 소재로 쓴 책들이 수십 권에 달할 만큼 그는 끝없이 움직이는 화재의 인물이다.

이에 많은 독자들은 '미꾸라지 용 되다.' 라든가, '21세기 광개토대왕', '가난이 만든 재벌', '성공의 대명사', '진정한 아메리칸 드리머 남문기' 등 언론들과 함께 많은 수식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성공에 대한 열정의 기록서

남문기를 인용해서 출판된 저서들

미국의 한국부자들
송승우 저
(황소북스 2010)

성공예화
신경직 저
(국민일보 펴냄2009)

억만장자 이야기
이은영, 고수유.저
(나눔터 북스2008)

맨손으로 별을 딴 사나이
김도현 저
(중국서 2008)

에스프레소 그 행복의 사치
공병호 저
(21세기 북스 2007)

Success Partner
(석세스파트너 2006)

남문기를 인용해서 출판된 저서들

프레지던트
월간, 서울, 05/2011

시사인터뷰
월간, 서울, 07/17/2010

시사뉴스투데이
월간, 서울, 08/2009

경제포커스
월간, KBS 자매지, 10/2008, 2009

부동산매거진
월간, 서울, 12/2007

OK TIMES
월간, 서울, 대표 이구홍, 09/2007

뉴스플러스
월간, 서울, 04/12/2006

동포뉴스닷
월간, LA, 04/2002

NAMMOONKEY

주요 미주 한인사회 공헌 활동:

커뮤니티 – LA 한인회장 임기를 중심으로

- 현지인 총영사 임명 캠페인–실현
- 한인타운 (LA) 자율방범단 출범–출범
- 한인타운내 '올림픽경찰서' 이름 달기–실현
- 올림픽 & 피코 일방통행 저지운동 전개 (한인타운 전담 서명운동) –저지됨
- 한국계 주류정치인 적극후원 (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 등 탄생)
-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총력 (미 연방 하원의원 143명 서명, 마이크 혼다 의원 후원)
- 한미 정치인 교류협력
- 본국 수재민 돕기 기금모금 (전국 재해구호협회 전달 $53,000)
- 로스앤젤레스 노인복지회관 건립 착공 (임기 중)…현재완공
- 참정권 추진 촉진대회 다수…달성됨
- 한,미 정치인 다수 접견 – 한인타운 현안 문제 토의
- 유대인회장 접견과 유대 강화

2년 임기의 한인회장으로서 많은 한인타운의 문제점 해결

LA 한인회 민원

- 한인회 매월 크고 작은3,000여건의 민원처리
- 무료법률 세미나 코리안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 월 8명지원
- 청소년문제와 노인들의 문제점 상담
- 미국 초기 이민자 100여명 이상 상담 〈LA한인회 조직정비〉
- 한인회관 개축공사, 한인회 사무국을 최고의 공간확보
- 한인회 사무국 인원보강
- 한인회 미래기획단 신설 (전세계 한인회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 전 미주한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협조 〈LA한인 커뮤니티의 교육 관계〉
- '요꼬 이야기' 학교교재 사용 중지운동 (LA통합교육구 공문발송, 기능단체 토론회 등)
- 미주 한인 교포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Bank Teller, 봉제, 시민권 시험 등)

기 타

- 재외동포 참정권 및 이중국적 추진운동 전개 (서명운동 전개 및 지역 추진운동)
-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양로병원 위문행사 다수 등)
- 본국의료기관 전문 인력 한인회 상주 (자생 한방병원)
- 본국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27개 병원, 국립암센터 등)
-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 세계한상대회 참석
- 한인회보 정기 발간
- 사랑의 자전거 퍼레이드 (타 인종에 130여대 기증:대한체육회 기증)
- 시민권자 투표 참여운동
- 한국 물건 사주기 켐패인 전개
- LA 한인회 50년사 발간 편찬 중
- 기자 간담회 및 단체장 회의 정례화
-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모범학생 표창장 다수 수상
- 한국 전통정원 조성운동 전개 (기금모금, 패스티벌 참여 등)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으로

- 미주 전국 순회 '남문기성공학' 강의
- 시카고상공회의소 주최 한인축제 참석 (다수 정치인과 면담)
- 세계한상대회 참석
-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현안문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협의사항
- 한인타운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자회견 다수
- 양분된 상공인총연 조건 없는 통합 달성
-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방송 및 언론을 통해 해외동포 문제에 대한 인터뷰 다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으로

- 인천공항 심사대 라인 재외한국인도 한국인 라인가능…실현
- 거소증 2년에서 3년
- 주미 한국 영사관에 한국 공휴일 날 대체 근무제 실현
- 미국 운전 면허증 한국에 사용하는 방안
-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정기총회개최 (워싱턴에서 500여명참석)
-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 다수 면담
-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임시총회개최 (북경에서 400여명참석)
-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 홍보대사
- 제7대자연경관선정추진위원회 해외위원장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명예홍보대사
- 연평도 해병부대 방문 (폭격현장 답사 및 성금전달)
- 한국과 미국 방송 및 언론을 통해 해외동포 문제에 대한 인터뷰 다수
- 유럽 8개국 방문

1982년 300불을 가지고 도미. 청소부로 시작하여 23년전 '뉴스타 그룹' 을 창업하고 열정, 정직, 부지런함으로 재외국민들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 함은 물론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직업창출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룩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2,300여 명의 직원과 년3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밀리언에어로 만들었으며 년100만불 소득의 에이전트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년 소득 10만불 에이전트들은 300여명 이상 탄생시켜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다 함께 성공하는 풍토를 만들어 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었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민 온 한인들은 무조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의 도움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성공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음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를 실천하는 회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1,000며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서울성로원 원생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회장을 시작으로 재미해병대전우회회장, 미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 그리고 100만 대표인 LA한인회 직선회장으로 당선되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16만개의 한인사업체를 아우르는 미주한인 상공인들의 멘토인 성공신화의 총회장으로 권익신장 및 한인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그리고 미주한인 250만을 대표하여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과 소통을 하여 미 주류사회에 많은 이들이 정치에 입문하도록 협조하였고 이제는 750만 해외동포 전체를 아우르는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과 700여 한인회에서 참석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으로서 해외한민족과 한국에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해외동포 권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를 상대로 다중국적 해결과 750만 해외한인들을 위한 동포청 설립문제 그리고 참정권에 따른 투표방법 제도 개선 등 실질적 권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성자: 남문기
작성일: 02월 02일
2012년

남문기

남문기의 비전

300달러를 들고 **미국**에 건너가 청소부로
시작하여 꿈, 열정, 도전의 정신으로
미주 한인최대 **뉴스타부동산그룹**을
키워 한인 이민사에 새 이정표를
제시한 **남문기 회장**이
이 땅 젊은이들을 향한 외침!